영남 산불 1년, 희망이란 새싹 피우다

지난해 3월 25일 발생 산불에
의성 · 청송 사찰들 전각 전소
고운사, 사찰림도 97% 소실돼
경각심↑…유산 방재 논의 활발
피해 사찰들 복원불사 추진 중


2025년 의성 고운사 산불 피해 현장 모습. 고운사는 산불로 인해 전각 30동 중 21동이 전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여수령 · 신중일 · 임은호 · 김내영 기자

대한민국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영남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2025년 3월 14일 시작돼 3월 27일까지 이어졌던 '영남 산불'로 27명이 사망했고 10만4000여 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최악의 화마에는 천년고찰도 피해갈 수 없었다. 의성 고운사는 3월 25일 오후 4시 50분경 강한 바람을 타고 넘어온 비화(飛火)로 인해 30동의 건물 가운데 21동이 전소됐다. 소실된 전각 중에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가운루와 연수전이 포함됐다. 또한 고운사가 소유한 사찰림 249ha 가운데 97.6%인 243ha가 소실됐다.

의성 운람사는 3월 23일 확산된 산불로 대웅전을 비롯한 요사채 2동과 공양간 등 총 6개동이 불에 탔고, 주변 산림도 큰 피해를 입었다. 비구니 사찰 청송 보광사는 경내 누각인 만세루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보광사 만세루는 조선 세종이 부사 하담(河澹)에게 명해 건립한 청송 심씨 시조인 심홍부의 묘재각(墓齋閣)이다. 월막리에 15세기 건립된 찬경루와 같이 지어졌다고 알려져 있다. 다행히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보광사 극락전은 화마를 피했다.

의성 만장사는 3월 26일 전각 7동 중 5동이 전소됐으며, 나머지 두 동의 건물도 크게 훼손됐다. 안동 용담사의 무량전(경북도문화유산자료)과 용담사 금정암 화엄강당(경북도문화유산자료)은 소실됐으며, 통일신라 석불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던 의성 관덕동 석조보살좌상(경북유형문화유산) 또한 전소됐다.

영남 산불 1년의 변화들

'영남 산불' 직후 불교계는 피해 복구를 위해 마음을 모았다. 조계종을 비롯한 종단과 신도·신행단체들은 기금을 모연해 현장에 전달했다. 본지 역시 산불 재난 지원금 1000만원을 모연해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기탁하기도 했다.

불교환경연대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산불 원인 조사와 논의가 이어졌으며, 최근 1년간 연구 결과를 모아 '2025 경북산불 피해확산 원인조사 보고서'가 발간됐다. 연구에는 홍석환 부산대 교수·황석정 산불정책기술연구소장 등 전문가를 비롯해 6개 대학·연구소가 참여했다.

이번 보고서는 크게 두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의성 산불 진행 경과 분석 및 현장 대응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다. 이들은 산림청 상황을 35건을 전수 분석하고 "기상 자료와 교차 검증한 결과 발화 직후부터 대규모 자원이 투입되었음에도 실질적 화선 축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약 60시간의 저풍속 구간에서도 확산 저지가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둘째, 산불 피해 영향 요인 분석이다. 보고서는 피해지 내 1050개 조사구를 대상으로 식생 구조, 간벌 여부, 지형 등이 피해 강도에 미친 영향을 규명했다. 이에 따르면 간벌지 교목 고사율은 비간벌지의 3배 이상이었고 능선부 침엽수 간벌지의 수관화 발생률은 78.8%로 비간벌지(5.3%)와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불교문화유산을 화마로부터 지키기 위한 논의들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점도 '영남 산불'로 인한 변화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지난 3월 12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교육실에서 산불 및 화재에 대비한 불교문화유산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가유산청과 산림청, 소방방재청 등 정부 부처와 불교계, 관련 전문가가 참석해 불교문화유산의 산불·화재 대응 정책 현황과 개선 방향을 공유·논의했다.

지난해 12월 9일에는 조계종 문화부(부장 성원 스님) 주최로 '문화유산 보유사찰 재난 대응시설 마련 전문가 좌담회'가 열리기도 했다. 기조발제자로 참여한 김동현 전주대 소방안전공학과 교수는 국가유산청 연구사업을 통해 조사된 전통사찰 산불 위험도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98개 전통사찰의 산불 위험도는 매우 높음(7.5~10) 19곳, 높음(5~7.5) 45곳, 보통(3~5) 29곳, 낮음(1~3) 5곳으로 확인됐다. 조사 사찰 중 65%가 위험도 '높음'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에 김 교수는 미리 물을 뿌려 산불로부터 문화유산과 숲을 지킬 수 있는 '산불 방지 스프링클러'와 광역산불소화시설의 설치를 제안하기도 했다.

피해 사찰들 다시 일어서다

화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던 천년고찰들도 다시 일어서고 있다. 고운사는 현재 의성군 주도로 위험목 제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사찰 건물과 방문객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건축물 주변과 통행로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정비 대상은 대웅보전 일대 등 13.11ha이며, 사찰 진입로인 천년숲길에서는 산불 피해 소나무 88본이 벌채된다.

소실된 전각인 극락전·약사전 등의 복원 불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보물 가운루와 연수전은 원형 복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설계 단계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실된 사찰림에 대해 고운사는 '자연 복원'과 '차나무 식재'를 추진한다. 지난 1월 26일 고운사에서 열린 '고운사 사찰림 자연복원 프로젝트 중간 보고회'에서 불교환경연대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의성 사찰림의 자연복원 과정을 관찰한 결과 예상을 뛰어넘는 복원 속도가 확인됐다"며 "총 17종의 포유류, 28종의 야생조류가 발견됐으며 참나무류 등의 맹아와 함께 고사리, 야생화 등도 관찰됐다"고 밝혔다.

또한 '차나무'는 방화수(防火樹) 역할을 맡는다. 고운사 총무 범종 스님은 지난 3월 12일 간담회에서 "차나무는 상록 활엽 저목으로 수분 함량이 높아 내화성이 우수해 사찰 경내 하층 식재에 최적화돼 있다"며 "고운사를 비롯한 말사에서는 올 여름부터 방화수종인 차나무를 식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 운람사는 향후 2년 내 전체 불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올해와 내년에 걸쳐 총 6채의 전각을 추가로 건립할 예정이다. 올해는 대웅전과 산왕각(산신각), 청어당(주지채)을 우선 건립하고, 내년에는 수선당(묘사채), 약성당(공양간), 공왕당(요사채)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운람사 주지 등오 스님은 "현재 대웅전은 3월 7일 상량식을 마쳤고, 부처님오신날 이후 7~8월경에 낙성식을 계획하고 있다"며 "산불 당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도움을 준 소방관, 스님, 불자들을 모두 초청해 감사의 의미를 담은 큰 규모의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각이 피해 없이 남아 법회를 이어 갈 수 있었다. 9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지만 그을음 피해도 없어 현재까지 정기 법회를 모두 이곳에서 봉행하고 있다"며 "사찰 본연의 역할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사 완료를 계기로 운람사는 문화유산을 중심에 둔 수행 공간으로 거듭난다는 방침이다. 운람사에는 2010년 보물로 지정된 '초조본 불설가섭부불반열반경'과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인 목조 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 유물이 봉안돼 있다. 등오 스님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살리면서도 가장 사찰다운 모습으로 복원해, 누구나 예경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청송 보광사는 만세루(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와 요사채인 보본당의 복원불사를 시작했다.

주지 무구 스님은 "보본당은 설계를 마치고 상반기 중 착공할 예정이며, 만세루는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라며 "종단과 스님, 신도들이 보내 주신 관심과 정성에 보답하기 위해 복원 불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6 승려연수교육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포교
-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 변화하는 시대의 소통방안
- 생활속의 마음 공부 : 치유와 성장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주 제 :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일 정 : 2026년 9월 7일(월) ~ 9일(수)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인 증 : 조계종 교육원 인증 연수 (30점)
-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 교 육 비 : 20만원
- 입 금 :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과학원
-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 문 의 : 한마음과학원 사무국 031-470-3200/3201 (일,월요일 휴무)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